

特 輯

= 最近의 日本肥料事情 =

編輯者註：

日本農林省은 요즘 78年度版 「最近의 肥料事情」을 整理 發刊했다. 內容은 生産, 輸入, 內需, 輸出, 價格, 流通分野에 關해 解說과 統計 資料가 収録되어 있는데 各分野의 解說內容을 이에 翻譯 掲載 하오니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生産事情>

① Ammonia의 生産能力

Ammonia의 生産能力은 1工場當能力의 增加, 石油系原料로의 品換等 그의 近代化, 合理化가 計劃推進되어 왔으나 第2次 Ammonia大型化計劃은 71肥로 終了되어 그後 新增設등이 없이 78年 4月 1日 現在로는 457萬噸이다.

② 아系肥料의 需給

48年の 石油危機後 日本의 尿素, 硫安등의 主要 輸出國인 中共, Indonesia 등의 東南아세아諸國에 있어서의 自給度의 司上등 國際事情의 變化에 따라 輸出量은 減少되고 있는 한편 國內需要는 거의 保合狀態에 있기때문에 輸出量이 減少하는만큼의 量의 減少를 不可避하게 함으로써 77肥料年度에는 硫安 및 尿素의 生産은 前年과

같이 低迷을 繼續하는 結果가 되었다.

③ 磷酸肥料의 生産能力

磷酸에 關해서는 第2次 Ammonia大型化計劃의 進展 및 磷安의 輸入自由化에 対応하여 그 生産設備의 大型化등을 中心으로한 合理化가 徹해져 69~72년에 걸쳐 大型磷酸設備가 3個所稼動했다. 磷酸液의 生産能力은 設備의 新設에 依한 能力增加가 있음으로서 76年 4月 1日 現在로는 93萬 8,000 P₂O₅ 屯/年으로 前年比 8% 增加했으나 그後는 一部 設備가 廢棄되어 77年 4月 1日 現在로는 92萬 6,000 P₂O₅ 屯/年, 88年 4月 1日 現在로는 91萬 1,000 P₂O₅ 屯/年이 되어있다.

④ 카바이트의 需給

77年度의 카바이트의 生産은 54萬 2,000 屯으로 前年比 97%, 消費面에서 占하는 石灰窒素用의 比率은 23%였다. 카바이트工業에 關해서는 最近의 有機合成用分野의 石油化學製品의 代替에 依해 生産規模의 縮少를 隨伴하는 體質改鑄이 要求되어 오늘날에는 熔接熔斷用 및 鑄鐵脫硫用이 主要用途가 되었다.

74肥料年度以後에 있어서는 이와같은 構造的 變化도 거의 끝났음으로 特別한 問題는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⑤ 硫酸의 需給

硫酸의 生産構造는 70年까지 硫化鉍焙燒出硫酸이 主体였으나 公害問題나 非鉄金屬의 需要增에 依한 製鍊 Gas出硫酸의 增加에 依해 硫化鉍焙燒設備의 休廢止가 잇달아 71年以後 그 生産比率이

逆転했다. 그 때문에 非鉄金屬製鍊時 副産物로 生産되는 製鍊 Gas 出硫酸이 生産의 主体가 됨으로서 生産面에 弾力性이 없어지게 되었다.

75年度에 있어서의 硫酸의 生産은 製鍊 Gas 出硫酸이 非鉄金屬의 需要下落에 依한 生産減少에 접쳐 硫化鉍出硫酸이 硫酸의 需要減少에 依해 減産한것에 依해 前年比 15% 減縮되었다. 한편 需要에 대해서는 纖維用이 若干 伸張은 되었으나 肥料用의 大幅의 減退로 前年보다 13% 下廻하는 結果가 되었다. 76년에 들어와 需給은 多少 回復되어 生産은 613万 5,000 屯 (前年比 103%), 需要는 612万 3,000 屯 (同 102%) 이 되었다. 그러나 肥料用은 昨年에 이어 前年比 6% 減少되었다. 77年度는 生産 641万 8,000 屯 (前年比 105%), 需要는 工業用이 거의 前年水準이었던데 比해 肥料用은 前年比 111%로 回復되었다.

< 輸入事情 >

① 加里塩의 輸入

日本の 加里肥料는 全量을 輸入에 依存하고 있으나 77肥의 輸入量 (送狀 base)은 前年比 保습이었다. 이것은 前肥料年度에 75肥에 増大한 在庫가 整理되어 出荷가 平常時로 回復한것에 따라 輸入量도 高水準이 되었으나 그後도 生産이 順調롭게 推進된 때문에 이것을 反映하여 前年水準을 維持한것. 輸入先別로 보면 塩加는 Canada (Share 40%)가 前年보다 7%減, 소련 (21%),

美国 (10 %) 도 다함께 前年보다 減少했다.

한편 西独 (Share 10 %), 仏 (8 %) 및 Israel (6 %) 이 前年보다 크게 增加했다. 또 50 年에 Peak 를 이룬 輸入價格 (CIF) 은 世界的인 肥料의 需給緩和를 背景으로 하여 76 年부터 價格下落으로 바뀌었으나 77 年에도 繼續 低下傾向을 나타냈다.

체코슬로바키아의 肥料工業

— 強化와 近代化 —

東歐의 肥料産業 發展이 國際 肥料産業 狀況에 強力하고 持續的인 影響을 미쳤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國際肥料界에 끼친 影響이 비록 他東歐國家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東歐圈內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상당한 發展에 對해 說明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보이는 獨特한 傾向을 체코슬로바키아 內에서 볼 수 있다.

< 肥料産業의 發展과 組織 >

第 2 次 世界大戰後 國家再建이라는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謀業에 直面하여, 체코슬로바키아가 即刻적으로 肥料産業에 最優先權을 두지 않고, 重工業과 消費材 生産의 發展을 꾀한 것은 當然한 일이었다.

그러나 1950 年代 末에 이르러 食糧의 國內生産 增加가 國家經濟福利에 絶對的이라는 것이 明白해 졌다. 結局 체코슬로바키아의